



위산으로 가는 협곡에 형성된 작은 산촌마을에는 동경시터가 있다. 마을 주위에 차밭이 등성등성 일궈졌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다”

1면에서 계속

버스는 위산향(僞山鄕)을 향해서 강변 협곡을 달리고 있다. 잠시 눈을 감으며 집게손가락을 오므려 본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이 사람들에게 즐거 주는 화두다. 이곳을 오던 중에 들었던 대법광 보살의 얘기가 문득 떠오른다. 보살은 이화여대 의대에서 세포생물학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다. 13년 전에 친구 소개로 안국선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화두가 타파되는데 7일이 걸렸다고 한다.

“스님께서 집게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답만 찾으라고 하셨어요. 스님께서 날마다 몸 안에 의심머리가 꼭 차도록 물고 가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에도 프로세스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7일째 되는 날에는 몸에 염이 빠지는 것 같은 특이한 경험을 했지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눈앞에 환한 섬광이 비쳤다고나 할까요. 그런 변화가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의 에너지구나 하는 확신이 왔어요. 그때의 환희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살은 환희심이라고 했지만 ‘행복한 마음’과 동의어일 터이다.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에 수구했던 환희심은 보살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강의가 있는 날에도 선원에 들러 두 시간씩 정진해야 자신을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선원을 찾았다.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과학계에서는 자연발생설이나 진화론이나 창조론 등으로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스님 법문 들으며 모든 게 무에서 유가 되는데 있어서 다 인과에 의해서 인연 지어져 하나의 생명체나 물질이 이뤄지는구나 하고 의심 없이 와 닿습니다. 인과를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선원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정말 잘살아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들고, 참내가 좋은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진을 해서 저에게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화내는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것이예요. 속상해 화가 났다가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참아지는 것이죠. 그런 힘이 결국 나를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첫 날부터 생물학자를 담당하게 물고 간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 힘은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화두를 든 제자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순례자들

은 가슴에 의심을 탁 꽂아주는 스승이 먼저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의 발심(發心)도 그에 못지않은 인연임을 집착해 볼 때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힘을 쓰는 줄탁동기가 정답이 아닐까 싶다. 두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위산이 화로 속 불씨 하나로 깨닫다

사무치는 경험 없이 어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백장과 위산이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인연은 눈물겹도록 깊고 지중했다. 절절한 시절인연이었다. 위산의 휘는 영우(靈祐), 복건성 복주(福州) 장계(長齋) 조씨(趙氏) 자손으로 15세에 출가하여 건선사 대대 법상에게 머리를 깎았고, 절강성 항주 용흥사에서 대소승의 교리를 공부했다. 23세에 강사로 가 백장 화해를 참례한 뒤 입실을 허락받고 정진하던 중에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 그 내밀한 인연은 꼭두새벽에 다가왔다.

추운 겨울 새벽이었다. 백장의 침상 곁에 놓아둔 화로는 새벽녘이 되자 불이 사그라져 차가웠다. 50세 안팎의 중늬음이 백장은 추위를 참다못해 시자를 찾았다.

“누가 있는가.”
“영우입니다.”
“화로 속에 불이 있는지 헤쳐 보아라.”
위산이 부젓가락을 들어 화로 속을 대충 헤쳐 본 뒤 말했다.
“불이 없습니다.”

백장은 미소를 지었다. 화로 속에 아직 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장은 침상에서 일어나 부젓가락을 들고 화로 속을 이리저리 뒤졌다. 위산은 몹시 긴장하여 새벽잠이 확 달아났다. 시자로서 난처했다. 위산은 화로 속을 대충 뒤져 본 자신을 책망했다.

잠시 후, 백장이 재 속에서 불씨 하나를 꺼내더니 위산의 이마 가까이 내밀었다. 위산은 불에 덴 것처럼

놀랐다. 그러나 백장의 말투는 자애로웠다.

“너는 불이 없다고 했지. 그럼 이 불씨는 무엇이나.”

위산은 불씨를 보는 순간 자신이 찾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위산은 백장에게 절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그러자 백장이 위산에게 말했다.

“잠시 나타난 갈림길일 뿐이다. 단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시절인연을 살펴보라’고 하셨다. 때가 되면 미혹했다가 홀연히 깨달은 것 같고 있었던 것을 홀연히 기억해낸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자기 것이었지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므로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고, 마음이 없

위양종 가풍... 할아버지 손자 다루듯 자애 “불법에 무슨 영성하고 치밀함이 있습니까”

만 법도 없어진다.’고 하셨다. 이것은 다만 허망하게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따위의 생각이 없어져 본래의 마음과 법이 완전하다는 것이다. 네가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잘 간직하라.”

다음날 백장은 위산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울력을 했다. 그때 백장이 위산에게 물었다.

“불을 가져 올 수 있느냐.”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위산이 장작개비 하나를 들더니 입으로 두어 번 후후 불어서 백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백장이 혀를 찼다.
“벌레 쫓는 막대기로군!”

이 선화처럼 위산이 불씨 하나로 깨닫는 인연은 진절하고 섬세하다. 황백과 임제의 인연처럼 난폭하고 거칠지 않다.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반조(返照)의 방편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다루듯 자애롭다. 위산은 그 가풍을 백장에게 받아서 양산에게 이었으니 미풍처럼 부드러운 종풍의 위양종이 된다.

위산 밀인사에 도착하기 30분 전쯤이었으리라. 동경사(同慶寺) 터가 멀리 보일 무렵부터 비가 그친다. 동경사 터만 남은 동경촌(同慶村)을 지나치면서

수불스님이 ‘동경사가 큰 줄 알았는데 작군.’ 하고 평한다. 동경촌 주위에 차밭이 등성등성 일궈져 있다. 위산으로 가는 길은 최근에 닦인 듯하다. 수불스님이 순례자들에게 말한다.

“위산에는 대(大)자가 많이 붙습니다. 대위산, 대북인(大福人) 등등. 우리에게 위산의 가풍이 맞아요. <위양록>을 강의하면서 위산을 가야지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택시 타고 몇 명밖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신도들과 어떻게 순례를 오겠어요. 중국 선종사찰은 어지간히 보았는데 위산 밀인사만 가지 못해서 늘 허전했지요.”

남약 형산의 불법이 대위산에서 펼쳐지다

위산영우가 밀인사 주지로 오게 된 까닭은 풍수에 달통한 사마두타의 천거가 결정적이었다. 어느 날 사마두타가 백장에게 말했다.

“지난날 호남에 살 때 대위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산은 1,500명의 대중이 모여 살 수 있는 큰 도량으로 보였습니다.”

사마두타는 이미 위산의 그릇을 시험해 본 뒤였다. 위산이 절의 침구와 음식 살림을 맡는 전좌(典座) 소임을 보고 있을 때, ‘백장의 여우 이야기’를 가지고 위산에게 어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위산이 문짜를 세 번 흔든다. 사마두타가 ‘꽤나 영성한 사람이군.’ 하고 말한바 이에 위산이 ‘불법에 무슨 영성하고 치밀함이 있습니까?’ 하고 선지(禪指)를 드러냈던 것이다.

백장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말했다.
“내가 가서 살 수 있겠는가.”
“스님께서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스님은 빠로 된 사람(得人)인데 그 산은 살로 된 산(肉山)입니다. 설사 스님께서 거처한다 해도 대중이 1,000명도 모이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는 화림선각(華林善覺)이 제 1좌였다. 백장은 시자에게 선각을 불러오게 했다.
“이 사람은 어떤가.”
사마두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선각을 뒤로 몇 걸음 물러서게 한 뒤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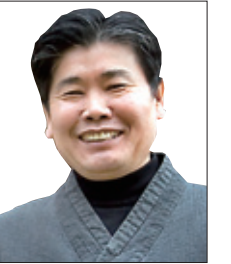
백장은 다시 시자에게 위산을 불러오게 했다. 사마두타는 위산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대위산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장은 그날 밤 위산을 불러 법을 전하였다.
“내가 교화할 인연은 여기에 있고, 위산에서는 그대가 살면서 나의 종풍을 계승하여 후학을 널리 제

사무치는 경험 없이 어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백장과 위산이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인연은 눈물겹도록 깊고 지중했다. 절절한 시절인연이었다. 그 내밀한 인연은 꼭두새벽에 다가왔다.

백장이 위산을 대위산의 주인으로 보내기 위해 사마두타와 함께 꾸민 방편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위산은 대위산으로 떠나게 된다. 49세(820년)의 나이로 입산한 위산은 도토리야 밤을 주워 먹으며 5, 6년을 여법하게 정진했다. 그런데도 대중이 모이지 않자 위산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고 산짐승들이 위산을 막았다. 이에 위산이 산짐승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산에 인연이 있다면 너희들은 각자 흩어지고, 만약 인연이 없다면 떠나려는 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먹도록 하라.”
산짐승들이 흩어졌다. 할 수 없이 위산은 절로 돌아왔는데 다음해 나안(懶安)이 몇몇 스님들과 함께 백장사에서 왔고, 나안이 전좌 소임을 맡더니 대중이 500명으로 늘어났다. 선객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배후는 절을 오가며 현묘한 진리를 궁구했으며 대장군 이경양(李景讓)이 황제에게 주청하여 위산이 말년에 주석할 동경사라는 이름을 받았다(847년).

마침내 버스가 위산향 소재지에서 멈춘다. 순례자 일행은 패랑을 지나 산문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산문 중앙에는 시방 밀인사(十方 密印寺)라는 편액이 보이고, 석문에 쓰인 ‘진리의 비가 형약으로부터 와서 양산에서 그 종풍이 열렸다(法雨來衡嶽 宗風啓仰山)’라는 5언 2구가 반갑다. 순례자 일행도 형산에서 출발하여 위산향에 와 있기에



글=정찬주 ibujae@naver.com 사진=유동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한부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부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 집밥을 막아주어 문화를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궁예양초

| | | |
|----------------------------|-----------------------------------|----------------------------|
|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 ③ 약복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
| ④ 약복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 ⑤ 밀납 PC 양초 5.5 f × 4cm 연소시간 약 8시간 | ⑥ 한부 금강경 세트 5.9 f × 18cm |

한부밀납 양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밀납초 90cm | ② 밀납초 연봉 환기통 | ③ 밀납초 돈타래 | ④ 밀납초 1호 | ⑤ 밀납초 2호 | ⑥ 밀납초 3호 | ⑦ 밀납초 4호 | ⑧ 밀납초 5호 | ⑨ 밀납초 6호 | ⑩ 밀납초 7호 | ⑪ 밀납초 8호 | ⑫ 밀납초 9호 | ⑬ 밀납초 10호 | ⑭ 밀납초 11호 | ⑮ 밀납초 12호 | ⑯ 밀납초 13호 | ⑰ 밀납초 14호 | ⑱ 밀납초 15호 | ⑲ 밀납초 1호 | ⑳ 밀납초 2호 | ㉑ 밀납초 3호 | ㉒ 밀납초 4호 | ㉓ 밀납초 5호 | ㉔ 밀납초 6호 | ㉕ 밀납초 7호 | ㉖ 밀납초 8호 | ㉗ 밀납초 9호 | ㉘ 밀납초 10호 | ㉙ 밀납초 11호 | ㉚ 밀납초 12호 | ㉛ 밀납초 13호 | ㉜ 밀납초 14호 | ㉝ 밀납초 15호 | ㉞ 밀납초 1호 | ㉟ 밀납초 2호 | ㊱ 밀납초 3호 | ㊲ 밀납초 4호 | ㊳ 밀납초 5호 | ㊴ 밀납초 6호 | ㊵ 밀납초 7호 | ㊶ 밀납초 8호 | ㊷ 밀납초 9호 | ㊸ 밀납초 10호 | ㊹ 밀납초 11호 | ㊺ 밀납초 12호 | ㊻ 밀납초 13호 | ㊼ 밀납초 14호 | ㊽ 밀납초 15호 |
|------------|--------------|-----------|----------|----------|----------|----------|----------|----------|----------|----------|----------|-----------|-----------|-----------|-----------|-----------|-----------|----------|----------|----------|----------|----------|----------|----------|----------|----------|-----------|-----------|-----------|-----------|-----------|-----------|----------|----------|----------|----------|----------|----------|----------|----------|----------|-----------|-----------|-----------|-----------|-----------|-----------|

우향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